

유럽 포장산업의 발전 수준과 흐름 한눈에

파리국제포장기자재박람회(EMBALLAGE '94) 참관기

임경렬/보성산업 기획관리과 과장

우리 일행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PACK EXPO'94를 참관하고 긴 항로 끝에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것은 11월 18일 아침녘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버스를 이용해 전시장으로 직행했다. 입장 수속을 밟는 동안 전시관 계자 한 사람이 우리 일행이 멀리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따뜻한 차 대접을 하는 한편 전시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일단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우리가 입장 카드를 받고 전시장을 둘러 보려할 찰나 좁전의 즐거움은 가시고 다소간 서글픔을 맛보게 되었다. 그네들도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우리 일행의 입장 카드 가운데 몇 개에 국명을 'NORTH KOREA'로 표기했다. 우리가 그러한 오류 발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여 실무자의 실수였음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마음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파리 근교에는 두 곳에 전시장이 있는데 이번 EMBALLAGE'94가 개최된 곳은 파리시에서 북쪽으로 8킬로미터

쯤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VILLEPINTE라는 곳이다. 전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였는데 모두 6개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회는 그 가운데 4개관(3,4,5,6관)을 활용, 세계 각국의 포장자재기기 등이 전시되었다.

전시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EC 역내의 국가들이 포장과 물류, 저장분야 등에 있어서 관련제품과 기계기기, 라벨러 등에서 저마다 특기할만한 것들을 내놓아 부스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4개의 전시관은 원형으로 연결되어 관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전시 제품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3관의 경우 주로 포장관련 물류의 한 방법으로 저장, 자동패리트 포장, 박스포장, 액체나 의약품 TABLET 자동포장, 자동벤딩기계 등이 선보였다. 각기 다양한 방법, 특이한 디자인이 구사돼 제작된 기계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4관에서는 자동충전기계와 식품포장기계, 골판지 포장관련 기계 등이 주로 전시되었다.

5관과 6관에는 첨단 의 예술과 패션의 선진국답게 관련 아이템들이 많이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특히 프랑스가 세계 제일의 화장품산업 국가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와 관련된 제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었다. 화장품 가운데서도 주로 향수

관련 자동포장기계와 용기, 라벨 등이 6관을 거의 뒤덮을 정도였다. 그러한 향수관련 포장용기나 디자인, 포장기계 등은 우리의 수준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기발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품 경향을 한 방향으로 뚝뚝그러 설명하자면 대체로 환경대응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IN MOLD LABEL이나 용기 등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스티커 등으로 구분돼 전시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환경을 고려한 포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 이러한 분야에 노력을 경사하고 있는 유럽의 포장산업 동향을 읽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PACK EXPO나 국내 전시회 경우와는 다르게 사진촬영은 물론 금지되었고, 샘플 요청도 기술정보 노출을 꺼려하는 이유에서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체로 이번 파리국제포장기자재박람회 참관을 통해 유럽 포장산업의 발전 수준과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네들의 경우 포장의 편리성과 보호성, 소비자 안내, 물류 등을 배려한, 즉 제품을 위한 포장으로 그친다는 것에 포장의 목표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이러한 포장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보다 시야를 넓게 가지고 세계적인 흐름에서 포장산업에 종사해야 할 것이라는 소박한 느낌을 갖고 돌아왔다.

